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권 4호 (2013년 12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목 차

또래괴롭힘 참여역할에 따른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차이 김혜리

노년기 마음읽기 능력과 사회적 적응 최현옥·김혜리

3세 아동의 가정환경 자극과 발달 수준이 7세 아동의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수정·곽금주

아동의 수줍음 경향, 면담자의 사회적지지, 출처 감찰 훈련이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 이승진·곽금주

태아애착 척도(MFAS)의 타당화 연구 이경숙·김진하·홍수종·장형윤·신의진·김명식

동성 및 이성 성인의 진술에 대한 만 3-4세 아동의 신뢰성 판단 정선아·최영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령 전기 아동의 실행 기능 발달 최영은·최미혜·남민지

한국 아동의 문장 구조 정보를 활용한 문장 이해 능력의 발달 이우열·김민주·송현주

한국심리학회지

발 달

제 26 권 제 4 호 / 2013. 12

또래괴롭힘 참여역할에 따른 인지적·정서적 공감의 차이	김혜리 / 1
노년기 마음읽기 능력과 사회적 적응	최현옥·김혜리 / 21
3세 아동의 가정환경 자극과 발달 수준이 7세 아동의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	김수정·곽금주 / 41
아동의 수줍음 경향, 면담자의 사회적지지, 출처 감찰 훈련이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	이승진·곽금주 / 59
태아애착 척도(MFAS)의 타당화 연구	이경숙·김진하·홍수종·장형운·신의진·김명식 / 81
동성 및 이성 성인의 진술에 대한 만 3-4세 아동의 신뢰성 판단	정선아·최영은 / 93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령 전기 아동의 실행 기능 발달	최영은·최미혜·남민지 / 107
한국 아동의 문장 구조 정보를 활용한 문장 이해 능력의 발달	이우열·김민주·송현주 / 125

한국발달심리학회

아동의 수줍음 경향, 면담자의 사회적지지, 출처 감찰 훈련이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

이 승 진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곽 금 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아동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실험실을 벗어난 상황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불안이나 긴장,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치과 진료를 경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출처 감찰 훈련 그리고 아동의 기질적 특성이 자유 회상 보고의 정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경험에 대한 아동의 자유 회상, 즉 면담자의 개방적 질문에 따른 자발적 보고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기억 역시 선행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미취학 아동들은 취학 아동보다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취학 아동에게 기대되지 못했던 출처 감찰 훈련의 효과도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조건에서는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출처 감찰 훈련이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높은 아동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의 정확성이 면담자의 태도와 인지 훈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서도 상이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진술 조사 맥락에서 피해 아동의 수줍음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면담 실시와 면담자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 하였다.

주요어 : 기억, 스트레스, 출처감찰, 사회적 지지, 수줍음, 아동 진술

* 본 연구는 2012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연구비에서 일부 지원받아 실시하였음(No. 2012S1A5B5A01022300).

† 교신저자: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E-mail: kkwak@snu.ac.kr

아동 성폭력 및 아동 학대와 같은 치명적인 범죄 사건에서 아동이 피해자 혹은 목격자로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아동의 직접적인 진술이 요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김혜정, 2012). 아동 진술 요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해 아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피의자의 올바른 식별 및 처벌을 위한 실증적 증거를 획득하기 위함이다. 특히 아동 성범죄의 경우 공공연하지 않고 은밀하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인 아동과 가해자 이외에는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아동이 피해를 당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뚜렷한 신체적 외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동의 자발적 진술만이 범죄 사건의 발생 유무와 정황에 대한 유일한 정보가 되기도 한다(곽금주, 이승진, 2006 재인용). 그러나 피의자를 직접 대면해야 하는 상황, 공개된 법정에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상황, 변호사의 교호 신문을 겪어야 하는 상황 등은 피해 아동들에게 또 다른 심리적, 정신적 외상을 초래할 위험을 다분히 내재하고 있다. 이를 우려하여 현 법정에서는 아동에게 부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이 법정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사전에 녹화된 아동의 진술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권창국, 2009). 이와 같은 아동 인권 보호와 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 체계의 제도 개선과 더불어 학술적 관점에서도 아동 친화적 조사 면담의 중요성(원혜옥, 2007), 아동 성폭력 전담수사제의 효율적 대안(이미정, 2009) 등의 주제에 연구자 및 실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학술 연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동 전담 수사 면담자 훈련이나 피해 아동의

진술 조사 방안 등과 관련하여 입법 및 법률적인 정책 변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함이다(Lamb, La Rooy, Malloy, & Katz, 2011).

아동 진술 보고의 정확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아동의 개인차 특성이 아동의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Blandon-Gitlin & Pezdek, 2009).

아동의 기질은 생물학적인 기초와 출생 후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아동의 타고난 특성과 성장 환경적 특성을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utnam & Rothbart, 2006).

아동 기억의 정확성을 예측함에 있어 아동의 기질과 같은 개인차 특성들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동일한 연령의 아동들 사이에서도 과거 사건의 회상 정확도와 오정보율에 차이가 있고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에 특정 아동들이 다른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Blandon-Gitlin & Pezdek, 2009). 아동의 다양한 개인차 특성들 중에서도 기질적 요인들은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Greenhoot, Ornstein, Gordon, & Bakerward, 1999; Roebbers & Schneider, 2001). 구체적으로 기질적 특성 중 주의통제력, 즉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 규제를 위해 주의를 이동하고 다시 집중할 수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아동은 주의통제력이 낮은 아동들에 비해 과거 경험에 대한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almon, Roncolato, & Gleitzman, 2003). 또한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 접근/회피, 정서성, 적응성의 요인들은 취학전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을 다른 기질적 요인들 보다 신뢰롭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rdon, Ornstein, Nida, Follmer, Creshaw, & Albert, 1993). 특히 스트레스가 유발되는 진료(예; Voiding cystourethrogram: 배뇨성 방광 요도 조영상 - 아동의 요도에 도관을 집어넣는 매우 고통스런 의료 절차)에 대한 아동의 회상 정확성과 이와 같은 기질적 특성들이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erritt, Ornstein, & Spicker, 1994). 예를 들어 접근성 기질이 높은 아동일수록, 긍정적 정서의 아동일수록, 낯선 환경에의 적응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아동의 기질적 특성에 의해 다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아동의 기질적 요인과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실제 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해 아동의 공통적인 특성들, 예를 들어 낮은 자존감과 위축,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특성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Kaufman & Cicchetti, 1989). 이는 아동의 기질적 요인 중에서도 수줍음과 관련된 특성들로 특히 실제 범죄 사건의 피해 아동들은 타인에 대한 공포심, 불안정한 애착 등이 만연해 있다. 이와 같은 성향은 진술 조사 맥락에서 수사 면담 환경이나 면담자의 태도에 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수줍음과 관련된 아동의 기질적 특성을 중심으로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 사건에 대한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 그리고 면담자 태도의 영향 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한편 출처 감찰 능력과 아동 기억의 정확성 간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Thierry, Lamb, Pipe, & Spence, 2010).

출처 감찰은 특정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

떻게 일어났는지와 관련된 정보를 기억하는 인지적 활동이다(Johnson, Hashtroudi, & Lindsay, 1993, p. 3). 아동의 출처 감찰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능력으로 표면적으로는 아동의 원활한 삶의 적응이나 만족도와는 다소 무관한 능력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이나 만화, 인터넷 등을 통해 무한한 정보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 사회에서 올바른 출처 감찰은 아동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아동이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과 단지 상상에 의한, 혹은 들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면담자가 의도치 않게 제공하는 여러 암시적 정보들에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진술 조사 맥락에서 아동의 출처 감찰 능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Thierry et al., 2010). 실제로 관련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 능력이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과 매우 높은 관련이 있음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Payment, 2001; Roberts, 2000). 특히 만 3-4세 아동의 경우 직접 경험에 의해 획득한 정보와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은 정보 혹은 들어서 알게 된 정보들에 대한 정확한 구별, 즉 출처 감찰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ierry, Goh, Pipe, & Murray, 2005; Thierry & Spence, 2002).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만 3-4세 아동의 경우 정보의 기억, 판단, 인출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두엽 영역이 미성숙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Schacter, Kagan, & Leichtman, 1995). 그러나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 아동들도 Vygotsky(1978)가 제시하는 발달화의 개념처럼 성인이 제공하는 적절한 단서나 특정한 인지 훈련을 통해 과제 수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선행 연구들도 출처 감찰

을 강조하는 상위 인지 훈련은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을 유의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이승진, 곽금주, 2009; Thierry et al., 2010). 그러나 아동의 출처 감찰 능력 및 출처 감찰 훈련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이 갖고 있는 일관된 한계는 연구에서 이용된 기억 사건들이 유발하는 정서가 아동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범죄 사건들과 본질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기억 사건은 실험실에서 울리는 화재 경보, 낯선 사람의 갑작스런 등장 등 중립적 정서가의 사건이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Quas, Bauer, & Boyce, 2004; Quas & Lench, 2007). 이와 같은 사건에 관한 정보 처리 과정보다 현실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스트레스, 불안, 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가 더 많이 유발될 것이다. 그리고 격양된 부정적 정서는 아동의 출처 감찰의 정확도를 낮출 뿐 아니라 낯선 면담자와의 면담 상황을 거부하고 응답 자체를 회피할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중립적 정서가의 사건이 아닌 자연스럽게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사건을 이용하여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과 출처 감찰의 훈련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은 아동의 기질적 특성, 출처 감찰 능력과 같은 내적 요인 이외에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곽금주, 이승진, 2006).

특히 정보의 부호화 과정이 아닌 정보의 인출을 요구하는 회상 과정은 개인의 의도적인 노력과 내적 의지가 보다 많이 수반되는 인지적 활동이다. 즉 아동이 정보를 회상하는 과정에서 면담자의 질문에 집중하고자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는 아동의 내적 의지와 동기에 많은 부분 의존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에는 면담의 분위기, 면담자의 태도 등의 환경적 요인들이 다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Quas et al., 2004). 특히 미취학 아동일수록 인지적 과제 수행에 있어 환경적 요인들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Fisher, 1980). 인지적 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어린 아동일수록 실제 법정 경험의 경직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진술 시 불안이나 긴장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Nathanson & Saywitz, 2003).

아동 회상 보고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으로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김효정, 2008; Quas et al. 2004).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온화한 면담 환경을 조성하고, 면담자와의 친밀감과 신뢰감 형성은 아동으로 하여금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를 자극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는 아동에게 다소 낯설고 불편한 면담 상황에서 유발되는 긴장과 불안 등의 정서를 완화시켜 면담자의 암시적 질문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Davis & Bottoms, 2002; Roberts, Lamb, & Sternberg, 2004). 유사한 맥락에서 이승진과 곽금주(2009)의 연구도 면담자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어린 아동들의 출처 감찰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 역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부정적 정서가의 사건 회상에도 유사한 수준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지, 혹

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현실적 함의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상황을 벗어나 스트레스나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실제 경험을 이용하여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출처 감찰 훈련과 같은 외적 요인들이 아동의 자유 회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수줍음 경향성이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출처 감찰 훈련에 대한 효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외적 요인들 특히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과 관련된 아동의 기억 중 자유 회상, 즉 면담자의 개방적 질문에 의한 자발적 보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또한 선행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미취학 아동들은 취학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취학 아동에게 기대되지 못했던 출처 감찰 훈련의 효과도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조건에서는 유의하게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출처 감찰 훈련이라는 외적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연령 이외에도 아동의 개인차 특성 특히 수줍음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 시내의 일반 소아 치과에서 충치나 발

치, 실란트¹⁾ 등의 기본 진료가 예약된 3-12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 기억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이 이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Baker-ward et al., 2009), 차후 본 연구에서 나타난 아동의 기억 수준과 선행 연구와의 결과를 비교 및 평가하기 위해 동일한 연령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출처 감찰 능력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3-7세경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선행 연구의 보고를 바탕으로(Robison, 2000) 본 연구에서는 3-7세의 미취학 아동과 8-12세의 취학 아동의 수행을 비교할 수 있도록 참여 아동의 연령 범위를 3-12세로 하였다. 또한, 미취학 아동일수록 환경적 맥락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이승진, 곽금주, 2009)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출처 감찰 훈련의 효과가 연령에 따라 출처 감찰 수행의 정확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과 취학 아동이 골고루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령 이외에 아동의 성별, 가족 관계, 사회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제한은 없었다.

총 140명의 참여 아동 중 일부 아동들은 부모님의 스케줄 문제, 치료 후 아동의 심리적 상태 등의 다양한 사정으로 기억 면담 혹은 인지 훈련 중 하나 혹은 모두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 하였다. 그와 같은 12명의 아동들이 제외된 128명의 아동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M=90.24개월, SD=28.29, 범위= 37-154개월, 남아: 66, 여아: 62).

본 연구 참여 아동의 치과 진료 경험에 대

1) 충치가 생기기 전 어금니의 울퉁불퉁한 면을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만들어 주는 시술

한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부분의 아동이 평균 7번 이상 치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번 이상에서 3번 이하의 치과 진료 경험이 있는 아동은 10.8%, 4-6번 정도는 16.2%, 7번 이상의 치과 진료 경험이 있는 아동은 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치과 방문 빈도, 작년에 치과를 방문한 경험의 빈도, 작년에 이 치과를 방문한 빈도 등에 따라 아동이 치료 과정에서 나타낸 불안이나 긴장 상태에는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치료진에 의한 평가, 연구진에 의한 평가, 자기 보고, $r=.07, .02, .04, p > .05$). 이는 곧 사전 치과 방문의 경험에 따라 참여 아동들이 경험한 부정적 정서의 각성 수준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치과 진료를 오기 전 부모님이 아동과 치과 방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물음에서는 짧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이 27%, 어느 정도 자세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이 62.2%, 매우 자세하게 대화를 나누었다는 응답이 8.1%,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치과를 방문하였다는 응답이 2.7%로 나타났다. 이 역시 본 연구의 참여 아동들의 경우 치과 진료 경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사전 정보를 갖추고 있었음을 함의한다. 결국, 본 연구의 참여 아동들에게 치과 진료 상황은 낯선 상황이기 보다는 적어도 한 두 번의 경험이 있는 반복된 경험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관련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일회성의 경험과 반복된 경험에 대한 아동의 회상 기억은 상이한 특성을 갖출 수 있으며 성폭행과 같은 사건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부적 경험보다 반복적인 부적 경험이 더 적합한 것으로 설명된 바 있다(Connolly, Price, Lavoie, & Gordon, 2008).

연구 절차

일반 소아 치과 진료가 예약되어 있는 3-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험자가 부모에게 직접 연구의 목적과 연구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 하였고 부모와 아동의 자발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아동은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제공 여부와 인지 훈련의 종류(출처 감찰 훈련 vs. 재인 회상 훈련)에 따라 4그룹 중 하나에 무선 할당되었다. 그리고 치과 진료를 받는 동안 아동의 행동적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진료의 전 과정이 부모님의 동의하에 녹화 되었다.

연구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치과 진료가 끝난 후 각 아동들은 5분 정도 소요되는 짧은 동영상을 관찰하였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다른 아동이 의사 선생님께서 일련의 진찰을 받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부록 1 참조). 이후 아동은 작업 기억 과제 중의 하나인 숫자 외우기를 수행한다. 이후 10분 정도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 5분 정도 소요되는 과학 실험들에(예: 자석놀이, 색종이 접기, 비눗방울 놀이, 돋보기 놀이 등) 아동이 참여한 후 유사한 내용의 과학 실험 동영상을 컴퓨터로 관찰하였다(부록 2 참조). 직접 참여와 동영상을 통한 과학 실험이 모두 종료되면, 실험 집단의 아동에게는 과학 놀이와 관련한 출처 감찰 훈련을, 통제 집단의 아동에게는 단순한 재인 평가를 인지적 훈련의 일환으로 제공하였다(부록 3, 4 참조). 인지 훈련의 세부 절차에는 Thierry 와 Spence (2002)의 연구에서 제시한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인지 훈련이 종료되고 나면 각 아동들은 또 한 번의 짧은 휴식 시간을 갖고 아동이 직접 경험한 치과 진료와

동영상 시청을 통해 관찰한 진료에 대한 기억 면담을 받았다. 기억 면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동에게는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나머지 아동에게는 제공하지 않도록 하였다.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를 조작하기 위해서 면담자의 다양한 비언어적 행동 중에서도 아동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에 의해 검증된 눈맞춤, 머리 끄덕임, 아동과의 거리, 면담 전 충분한 라포 형성 수준을 조작하였다(Davis & Bottoms, 2002). 즉 사회적 지지 조건에서 면담자는 1-2분 정도 정해진 지시대로 아동과 라포를 형성하고, 질문을 하는 동안 아동과 눈맞춤을 지속적으로 하며 아동의 응답 정확성과 무관하게 고개 끄덕임을 제공한다. 그리고 아동과의 가까운 거리에 앉아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반면, 비지지 조건의 경우 면담자는 1-2분 정도 질문지만을 쳐다보며 아동과 어떤 상호 작용도 시도하지 않았다. 질문에 대해 정해진 지시문만을 읽어 주고 질문하는 동안 아동과 눈맞춤이나 고개 끄덕임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아동과 면담자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았다. 면담

후 새로운 면담자에 의해 아동은 앞선 면담자에 대한 호감도와 불안을 평가하여 연구자의 실험 조작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의 전반적인 절차는 치과 진료 시간(최소: 10분, 최대: 45분, 평균: 15.09분, 표준편차: 2.72), 면담 시간(평균 30여분)으로 전체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아동의 기질에 관한 피드백 및 연구 참여 수료증이 참여 후 한 달 이내에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배송되었다.

참여 아동의 연령과 주요 연구 변인의 유무에 따른 피험자 수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측정도구 및 코딩

기억 면담

치과 진료를 통해 직접 경험한 내용과 동영상 상으로 관찰한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질문이 구성되었다. 우선 면담자의 암시적 정보 제공 없이 개방형 질문을 통한 아동의 자발적 보고가 정확성 측

표 1. 연령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및 출처 감찰 훈련 유무에 따른 피험자 수

연령	조건	아동 수(N)	합계(N)
미취학 아동 (3-7세)	사회적 지지 유/ 출처 감찰 훈련 유	18	64
	사회적 지지 유/ 출처 감찰 훈련 무	15	
	사회적 지지 무/ 출처 감찰 훈련 유	14	
	사회적 지지 무/ 출처 감찰 훈련 무	17	
취학 아동 (8-12세)	사회적 지지 유/ 출처 감찰 훈련 유	14	64
	사회적 지지 유/ 출처 감찰 훈련 무	17	
	사회적 지지 무/ 출처 감찰 훈련 유	18	
	사회적 지지 무/ 출처 감찰 훈련 무	15	
합계		128	128

면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하여 첫 번째 질문은 개방형 형태로 제공하였다(Lamb, Hershkowitz, Orbach, & Esplin, 2008). 방금 받은 치과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일 중 기억나는 대로 모두 말해볼까요?, 방금 시청한 동영상에서 내용 중 기억나는 것들을 모두 말해볼까요? 라는 질문을 통해 아동의 자발적 회상에 의한 정보를 최대한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는 자유 회상(free recall)으로 코딩되었다. 그리고 아동이 더 이상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치과 진료에서 직접 경험한 것인지 동영상에서 본 것인지 그 출처를 묻는 출처 감찰 문항을 제시하였다. 아동이 정확한 출처를 제공하는 경우 1점, 오답의 경우 0점으로 처리하였고 출처 감찰 문항은 총 24문항으로 0-24점의 범위를 갖는다. 이 출처 감찰 문항의 형태는 Thierry 와 Spence (2002)의 연구 방법에 따라 구성되었다.

스트레스 정도

어느 정도의 부정적 정서가 아동에게 유발되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진료 과정에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토대로 의뢰진이 Frankl 척도(Frankl, Shiere, & Fogels, 1962)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소아 치과 진료 맥락에서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평가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척도로 알려져 있다(Baker-ward et al., 2009). 4점 척도로 구성되며 1점의 경우 아동이 치과 진료 도중 매우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보인 것으로, 4점은 아동이 진료에 매우 협조적이며 불안한 행동이나 스트레스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진료 시 녹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두 명의 훈련된 연구자가 아동의 스트레스 행동 반응 점수를 Behavioral Profile

Rating Scale(BPRS; Melamed, Weinstein, Hawes, & Katin-Borland, 1975)를 통해 평가하였다. 평정자 간의 타당도는 .92 으로 높은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채점 기준은 Melamed 등(1975)의 방법과 동일하게 매 3분 간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아동의 스트레스적 반응 행동 여부를 기록하여 점수화 하였다.

또한 Visual Analogue Scale(VAS)을 이용하여 치과 진료 시 아동이 경험한 불안과 공포 수준에 대해 부모 보고 및 아동의 자가보고 점수가 기록 되었다(Marsac, 2008).

마지막으로 면담 후 아동은 새로운 면담자에 의해 기억 면담을 하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면담자가 얼마나 친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는 면담자의 호감도와 아동의 불안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환하게 웃는 표정과 찡그리는 표정이 있는 그림판에 아동이 직접 자신의 기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도록 하였다(이승진, 광금주, 2009; original from Davis & Bottoms, 2002).

아동의 기질

아동의 기질은 아동 행동 설문지 축약형(Childhood Behavior Questionnaire-short version)을 통해 평가되었다. 3-12세 아동들의 부모가 다양한 상황에서 보이는 평소 아동의 행동적 특성을 바탕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7점 척도를 이용해 응답한다. 또한 부모는 질문의 내용이 자신이 아동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당되지 않을 때 해당되지 않음에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36문항으로 세부 요인들로 는 활동 수준(3문항, 문항 간 내적 신뢰도 $\alpha=.60$), 높은 강도의 즐거움 추구 경향성(3

문항, $\alpha=.71$), 충동성(3문항, $\alpha=.72$) 수줍음(3문항, $\alpha=.83$), 화(2문항), 불안(3문항, $\alpha=.65$), 두려움(2문항, $\alpha=.80$), 슬픔(3문항, $\alpha=.78$), 안정성(2문항, $\alpha=.82$), 주의 집중(3문항, $\alpha=.77$), 억제적 통제(3문항, $\alpha=.79$), 낮은 강도의 즐거움 추구 경향성(3문항, $\alpha=.74$), 지각적 민감성(3문항, $\alpha=.68$)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종단 연구를 통해 유전, 환경, 문화적 차이가 주는 특성과 무관하게 그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Murphy, Eisenberg, Fabes, Shepard, & Guthrie, 1999).

특히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변인인 수줍음 문항은 새로움 혹은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아동의 접근 경향성을 살펴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주변 사람에게도 때때로 부끄러워하는 태도를 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과 편안하게 지낸다(역코딩), 새로운 사람들 주변에서 매우 수줍게 행동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Putnam & Rothbart, 2006).

분석방법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참여 아동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빈도 분석을 사용하여 검토하고,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인지 훈련의 연령별 효과가 중립적 정서가의 사건을 이용한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지 검증해 보는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수줍음 경향에 따른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인지 훈련 여부가 스트레스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자유 회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량 분석도 실시되었다.

결 과

우선, 진료 과정에서 아동이 보인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의료진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면 진료 과정에서 불안이나 긴장 혹은 스트레스적 행동을 매우 심하게 보인 것으로 평정된 아동은 전체 참여 아동 중 단 1.2%에 지나지 않았다. 스트레스적 행동을 어느 정도 보였던 아동은 7.3%, 다소 불안한 듯 보였으나 특별한 스트레스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진료에 잘 협조하고자 노력한 아동은 69.5%, 어떤 불안이나 긴장을 찾아볼 수 없고 매우 순조롭게 진료가 이루어진 아동은 전체의 22%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 아동들은 치과 진료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정서 상태를 보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자가 보고에서도 아동의 절반 이상이 치과 진료 시 통증이나 불안을 크게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매우 많이 아팠다, 11.5%; 많이 아팠다 4.6%; 조금 아팠다 25.4%; 매우 조금 아팠다 13.8%; 전혀 아프지 않았다 44.6%). 또한, 진료 과정에서 아동이 호소한 통증이나 불안 수준에 대한 부모 평가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우리 아동은 진료 시 매우 많이 아파했다, 2.7%; 많이 아파했다, 5.4%; 조금 아파했다, 40.5%; 매우 조금 아파했다, 35.1%; 전혀 아프지 않아했다, 16.2%).

요약하자면, 의료진과 아동 및 부모는 치과 진료에 의해 유발된 스트레스 정도를 모두 보통으로 평정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참여 아동들에게 치과 진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실 상황에서 유도되는 부정적 정서의 각성 수준보다는 치과 진료 시 자연스럽게 유발된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

되고, 실제로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정서의 수준을 보통이다라고 보고한 많은 아동들이 진료 과정에서 보인 행동적 스트레스 기록 자료에 따르면 진료 시 울음을 터뜨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보편적인 불안이나 공포 반응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참여 아동의 행동적 스트레스 수준의 평균은 5.77 (SD=3.69)이었으며 스트레스적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은 아동은 전체 참여 아동 128명 중 2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참여 아동들이 적어도 스트레스적 행동들(예: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입을 막는 행동, 팔을 휘두르는 행동, 소리 지르는 행동, 의자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행동 등) 한 번 이상 나타내었음을 의미한다. 아동이 경험한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주관적 보고와 행동적 스트레스 수준(BPRS)에 대한 결과가 이처럼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의료진이나 부모의 경우 전반적으로 치료가 무리 없이 종결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 반면, 행동적 스트레스 점수는 치료 과정에서 아동이 보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들 모두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의 기질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특히 수줍음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자유 회상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30, p < .01$). 즉, 부모가 수줍음이 많은 편으로 평가한 아동일수록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경험에 대한 회상 보고를 제공하는 정도가 낮았다. 그 외의 기질 변인들과 아동의 기억 점수와는 의미 있는 관계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아동의 작업 기억 능력이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인지 훈련 유무에 의한 집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아동의 숫자 외우기 점수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아동의 작업 기억 능력의 점수차는 각 집단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선 할당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격적으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사전 인지 훈련이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주효과, $F(1, 120)=40.85, p < .01$, 출처 감찰 훈련에 따른 주효과, $F(1, 120)=23.20, p < .01$, 연령에 따른 주효과, $F(1, 120)=33.01, p < .01$ 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여부, 출처 감찰 훈련 여부의 3원 상호 작용 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20)=9.35, p < .01$ (표 2 참조). 이는 연령에 따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여부와 출처 감찰 훈련 간의 상호 작용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취학전 아동들은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여부와 출처 감찰 훈련 간의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하였으나, $F(1, 60)=13.58, p < .01$, 취학 아동들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1, 60)=1.15, p > .05$. 이는 취학 아동들은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에 상관없이 인지 훈련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출처 감찰 수행이 향상된 반면, 취학전 아동들은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처 감찰 훈련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만 출처 감찰 훈련의 효과가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특히 어린 아동들의 인지적 과제 수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승진과 곽금주(2009)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

표 2.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및 출처 감찰 훈련 유무에 따른 출처 감찰 수행의 연령별 평균과 표준편차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제공 여부	인지 훈련 여부	출처 감찰의 정확도	
		미취학 아동 (N=64)	취학 아동 (N=64)
		M(SD)	
사회적 지지 제공 유	출처 감찰 훈련 유	14.01(0.78)	22.70(0.98)
	출처 감찰 훈련 무	11.2(0.15)	19.96(1.91)
	합계	12.65(1.25)	21.33(2.55)
사회적 지지 제공 무	출처 감찰 훈련 유	7.96(.60)	20.70(.94)
	출처 감찰 훈련 무	7.09(.64)	17.78(1.12)
	합계	7.51(.82)	19.24(2.44)
총합	출처 감찰 훈련 유	10.9(2.78)	22.20(1.53)
	출처 감찰 훈련 무	8.96(1.86)	18.37(1.98)
	합계	9.93(2.50)	20.29(2.73)

으로,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고 인지적 발달이 미성숙한 어린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사실은 중립적 정서가의 실험실 사건뿐만 아니라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실제 경험에도 일관되게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의 기질적 요인에 따른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출처 감찰 훈련이 아동의 자발적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특히 상관 분석에서 아동의 기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수줍음 요인의 중앙치 점수(4.33)를 기준으로 수줍음이 많은 아동과 적은 아동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2(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유무) X 2(출처 감찰 훈련 유무) X 2(수줍음이 많은 아동/적은 아동)의 3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

다, 자유 회상; $F(1, 120) = 31.12, p < .01$, 즉,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될 경우 아동의 자발적인 회상 보고 정도가 유의한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처 감찰 훈련에 따른 주효과 역시 나타났다, $F(1, 120) = 34.17, p < .01$, 이는 선행 연구와 일관된 결과로 출처 감찰 훈련이 아동의 자발적인 회상 보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수줍음 특성에 따른 주효과 역시 유의미하였다, $F(1, 120) = 38.58, p < .01$. 앞의 상관 분석의 결과와 일치하게 수줍음이 많은 아동일수록 자발적인 회상 보고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흥미로운 결과는 아동의 자유 회상에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여부, 출처 감찰 훈련 여부, 아동의 기질적 특성의 3원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F(1, 120) = 8.41, p < .01$. 이를 통계적으로 직

표 3.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및 출처 감찰 훈련 유무와 아동의 수줍음 경향에 따른 자유 회상의 평균과 표준 편차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유무	출처 감찰 훈련 유무	자유 회상의 정확도	
		수줍음이 높은 아동(N=66)	수줍음이 낮은 아동(N=62)
		M(SD)	
사회적 지지 유	출처 감찰 훈련 유	8.01(0.80)	10.01(0.78)
	출처 감찰 훈련 무	5.20(0.10)	7.2(1.61)
	합계	6.61(1.21)	8.65(2.23)
사회적 지지 무	출처 감찰 훈련 유	1.96(.82)	8.94(1.53)
	출처 감찰 훈련 무	1.09(.71)	6.15(1.01)
	합계	1.51(.91)	7.55(2.22)
총합	출처 감찰 훈련 유	4.99(1.74)	9.48(1.41)
	출처 감찰 훈련 무	3.15(1.56)	6.68(1.59)
	합계	4.06(2.61)	8.10(2.87)

점 검증하기 위하여 기질적 특성에 따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출처 감찰 훈련의 2원 상호 작용을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줍음이 많은 아동들에게는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여부와 출처 감찰 훈련의 2원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F(1, 62) = 11.85, p < .01$, 수줍음이 적은 아동들에게는 상호 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1, 58) = 0.31, p > .05$. 이는 수줍음이 낮은 아동들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에 상관없이 출처 감찰 훈련이 제공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인 회상 보고가 향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줍음이 높은 아동들에게는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지 훈련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만 인지 훈련의 효과가 기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줍음이 많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조건에서는 사전 인지 훈련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곧 자발적인 회상 보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맥락이 아동의 자유 회상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수줍음 경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한다.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경우 정보의 회상과 같은 인지적 과제 수행의 정확성이 향상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발견은 수줍음이 많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같은 환경적 맥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며, 이는 특히 아동의 자발적 회상을 최대한 끌어내야 하는 진술 조사 맥락에서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아동을 면담하는 경우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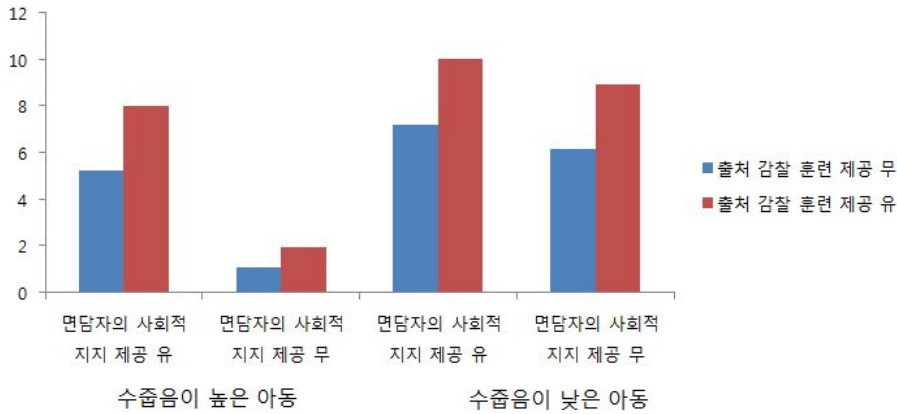


그림 1. 수줍음 경향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및 출처 감찰 훈련에 따른 자유 회상 정도

논 의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소아 치과 진료 상황을 이용하여 아동의 출처 감찰 능력 및 기질적 요인과 같은 내적 변인들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인지 훈련과 같은 외적 변인들이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들의 경우 중립적 정서가 유발되는 사건을 이용하여 아동의 출처 감찰 능력을 탐색해 보았다면(이승진, 곽금주, 2009) 본 연구는 스트레스나 긴장,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가 자연스럽게 유발되는 경험을 이용하여 아동의 자유 회상에 미치는 내, 외적요인들을 살펴본다 생태학적 타당도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구를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유 회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도 아동 내적 요인으로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 중 수줍음 경향이 특별히 고려되었고, 아동의 외적 요인으로는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출처 감

찰 훈련 여부와 같은 면담의 환경적 요인들이 고려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아동이 치과 진료를 받는 과정, 즉 사건을 경험하는 단계와 정보를 회상하는 과정, 즉 면담 단계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경우일수록 자발적 회상 보고의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과 사건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 혹은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회상 보고 정확성 간에는 부적 상관이 존재한다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한다(이승진, 곽금주, 2009; Baker-ward et al., 2009).

한편, 선행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들 중 자신의 행동이나 정서 규제를 위해 주의를 이동하고 다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즉 주의통제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아동의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주의통제력이 낮은 아동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Salmon et al., 2003). 그러나 중립적 정서가 유발되는 실험실 사건을 이용한 선행 연구와 달리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자연스런 경험을 이용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주의통제

력 특성과 회상 보고의 정확성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질적 특성 중 수줍음의 경향과 아동의 자유 회상 보고에 유의한 관계성이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부모에 의해 수줍음 경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면담자의 개방형 질문에 따른 자발적 회상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낮은 사람과의 대화를 회피하거나 수줍어하는 경향이 높은 아동일수록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려는 의지력이 낮고 이는 곧 기억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 (Quas, Alkon, Goldstein, & Boyce, 2006). 또한,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은 아동들은 네/아니오의 선택형 질문에 네 라는 응답을 제공하는 편향이 상대적으로 높고 따라서 더 많은 회상 오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Roebbers & Schneider, 2001). 또한, 수줍음 경향과 유사한 특성을 의미하는 다루기 용이함(manageability)이라는 기질적 특성은 해부학 인형이나 신체 해부도, 장난감 등 부가적 도구가 사용된 면담에서 회상 보고의 정확성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있다. 다루기 쉬운, 순응적 기질의 아동들은 부가적 면담 도구들이 갖는 암시적 단서들에 빠져드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 회상 오류를 더 많이 생산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었다(Greenhoot, Ornstein, Gordon, & Baker-ward, 1999). 이처럼 아동의 수줍음과 관련된 특성은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과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부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자연스런 경험에서도 그와 같은 관련성이 일관되게 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회상 보고는 스트레스 수준이나 기

질적 특성과 같은 아동의 내적 요인들 이외에도 외적 요인, 즉 면담의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도 복합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곽금주, 이승진, 2006, 재인용). 본 연구는 아동 면담의 환경적 요인으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여부와 출처 감찰 훈련이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보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중립적인 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보고의 정확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부정적 사건에 대한 회상에서도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될 때, 아동의 자발적인 회상 보고의 정확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 전 제공되는 출처 감찰 훈련이 부정적 경험과 관련된 아동의 출처 감찰 수행의 정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정보들의 출처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출처 감찰 훈련이 아동의 사건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에 의해 반복적으로 검증되어 왔다(Thierry, Lamb, Pipe, & Spence, 2010). 그러나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또 다른 함의는 출처 감찰 훈련과 같은 인지 훈련이 아동의 자발적 보고, 즉 자유 회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동 수사 면담 맥락에서 자유 회상이 갖는 가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면담자의 선택형 질문이 아닌 어떤 단서도 제공되지 않는 개방형 질문에 따른 아동의 자발적 보고로 제공되는 진술일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매우 높이 신뢰하기 때문이다(La Rooy, Malloy, & Lamb, 2011). 국제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NICHD 아동 수사 면담 프로토콜에서도 개방형 질문에 의해 아동의 자발적 보고를 가능한 많이 획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Lamb et

al., 2011). 따라서 아동의 자유 회상이 면담자의 출처 감찰 훈련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는 발견은 피해 아동의 진술 조사 맥락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발견한 흥미로운 결과는 아동의 수줍음 특성에 따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제공 여부가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사건과 관련된 아동의 자유 회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수줍음이 낮은 아동들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여부에 상관없이 사전 출처 감찰 훈련이 제공되는 경우 자발적인 회상 보고가 일관성 있게 향상되는 반면 수줍음이 높은 아동들은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처 감찰 훈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출처 감찰 훈련의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줍음이 많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는 아동의 자발적 보고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전 인지 훈련의 효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줍음이 많은 아동의 경우, 면담자와의 원활한 라포 형성이 아동의 자발적 회상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를 보여준다. 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학대 경험에 대한 대화를 꺼려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사 면담 시 면담자가 사전에 아동과 친근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London, Bruck, Ceci, & Shuman, 2007). 일반 면담에서도 라포 형성이 갖는 긍정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 수줍음 경향이 높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면담할 경우 면담자의 정서적 지지가

충분히 제공될 것으로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수사 면담의 현장 자료들을 분석하여 면담자와 의사소통을 꺼려하는 아동들과 면담자에게 매우 협조적이며 면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동들을 나누어 면담자가 실제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정도와 아동 보고의 정확성을 비교해 본 연구가 있다. 보편적인 예상과 달리, 의사소통을 주저하는 아동의 수사 면담에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제공되었고 면담에 협조적인 아동들에게 면담자는 사회적 지지를 오히려 더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그리고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아동 진술의 양과 정확성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rshkowitz, Orbach, Lamb, Sternberg, & Horowitz, 2006). 이는 아동의 수줍음 경향에 따라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 제공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로 그것이 아동의 회상 보고 정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불안, 긴장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사건에 대한 아동의 회상 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내, 외적 요인들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전반적으로 외적 요인들 특히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는 부정적 정서의 경험과 관련된 아동의 자유 회상, 즉 면담자의 개방적 질문에 의한 자발적 보고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미취학 아동들은 취학 아동보다 상대적으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취학 아동에게 기대되지 못했던 출처 감찰 훈련의 효과도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가 제공되는 조건에서는 유의하게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면담자의 사회적 지지와 출처 감

찰 훈련이라는 외적 요인들은 수줍음이 높은 아동들의 자유 회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부정적 정서가 유발된 경험에 대한 아동의 자유 회상이 면담자의 특성과 인지 훈련과 같은 외적 요인들에 의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함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이외에도 기질적 특성에 따라 그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치명적인 범죄 사건들을 경험하는 피해 아동들의 특성은 다양하기에 피해 아동들의 내외적인 특성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수사 면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시발점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인지적, 사회 정서적 특성들을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하여 아동의 연령과 개인차 특성에 따른 면담자의 태도 및 인지 훈련 제공 방식, 아동의 기억 향상 효과 등과 관련한 경험적 연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피해 아동의 진술 조사를 담당하는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곽금주, 이승진 (2006). 아동 증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5(2), 13-40.

권창국 (2009).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진술의 신뢰성 판단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형사정책*, 21(2), 63-94.

김혜정 (2012).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소고. *홍익법학*, 13(2), 25-48.

김효정 (2008). 사회적 지지가 아동 증언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원혜옥 (2007).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아동 증언의 인정 여부. *피해자학연구*, 15(2), 239-255.

이미정 (2009). 아동성폭력 전담수사제의 효율적 대안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4, 47-71.

이승진, 곽금주 (2009). 아동의 출처감찰 (source monitoring) 수행에 미치는 면담자 지지와 인지훈련의 연령별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2), 79 - 93.

Baker-Ward, L., Ornstein, P. A., Quinonez, R., Milano, M., Langley, H., Lee, S. et al. (2009). Children's Memory for a Dental Procedure: The Impact of Stress and Coping on Remembering, poster presented in Cognitive Developmental Society in San Antonio.

Blandón-Gitlin, I., & Pezdek, K. (2009). Children's memory in forensic contexts: Suggestibility, false memory,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B. L. Bottoms, C. J. Najdowski, & G. S. Goodman (Eds), *Children as Victims, Witnesses, and Offenders: Psychological Science and the Law* (pp.57-80). New York: Guilford.

Connolly, D. A., Price, H. L., Lavoie, J. A., & Gordon, H. M. (2008). Perceptions and predictors of children's credibility of a unique event and an instance of a repeated event. *Law and Human Behavior*, 32(1), 92-112.

Davis, S. L., & Bottoms, B. L. (2002).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children's eyewitness reports: A test of the underlying mechanism. *Law and Human Behavior*, 26, 185-215.

Fisher, K. W. (1980). A theory of cognitive development: The control and construction of hierarchies of skills. *Psychological Review*, 87,

- 477-531.
- Frankl, S. N., Shiere, F. R., & Fogels, H. R. (1962). Should the parent remain with the child in the dental operatory? *Journal of Dentistry for Children*, 29, 150-163.
- Greenhoot, A. F., Ornstein, P. A., Gordon, B. N., & Baker-ward., L. (1999). Acting out the detail of a pediatric check-up: The impact of interview condition and behavioral style on children's memory reports. *Child Development*, 70(2), 363-380
- Gordon, B., Ornstein, P. A., Nida, R., Follmer, A., Creshaw, C., & Albert, G. (1993). Does the use of dolls facilitate children's memory of visits to the docto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7, 459-474.
- Hershkowitz, I., Orbach, Y., Lamb, M. E., Sternberg, K. J., & Horowitz, D. (2006). Dynamics of forensic interviews with suspected abuse victims who do not disclose abuse. *Child Abuse & Neglect*, 30, 753-769.
- Johnson, M. K., Hashtroudi, S., & Lindsay, D. S. (1993). Source monitoring. *Psychological Bulletin*, 114(1), 3-28.
- Kaufam, J., & Cicchetti, D. (1989).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sessments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 516-524.
- La Rooy, D. J., Malloy, L. C., & Lamb, M. E. (2011). The development of memory in childhood. In M. E. Lamb, D. J. La Rooy, L. C. Malloy, & C. Katz (Eds.),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pp.49-68). Wiley-Blackwell.
- Lamb, M. E., Hershkowitz, I., Orbach, Y., & Esplin, P. W. (2008). *Tell Me What Happened: Structured Investigative Interviews of Child Victims and Witnesses*. Hoboken, NJ: Wiley.
- Lamb, M. E., La Rooy, D. J., Malloy, L. C., & Katz, C. (2011). *Children's Testimony: A Handbook of Psychological Research and Forensic Practice*. Wiley Blackwell.
- London, K., Bruck, M., & Ceci, S. J., & Shuman, D. (2007). Disclosure of child sexual abuse: A review of the contemporary empirical literature. In M. E. Pipe, M. E. Lamb, Y. Orbach, & A.-C. Cederborg (Eds.), *Child sexual abuse: Disclosure, delay, and denial* (pp.11-39).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rsac, M. L. (2008). *Relationships among Psychological Functioning, Dental Anxiety, Pain Perception, and Cop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oledo.
- McCarthy, D. A. (1972). *Manual for the McCarthy scales of children's abilities*. New York: Psychological Corporation.
- Melamed, B. G., Weinstein, D., Hawes, R., & Katin-Borland, M. (1975). Reduction of fear-related problems with use of film modelling. *Journal of the American Dental Association*, 90, 822-826.
- Merrit, K. A., Ornstein, P. A., & Spicker, B. (1994). Children's memory for a salient medical procedure: Implications for testimony. *Pediatrics*, 94(1), 17-23.
- Murphy, B. C., Eisenberg, N., Fabes, R. A.,

- Shepard, S., & Guthrie, I. K. (1999). Consistency and change in children's emotionality and regulation: A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5, 413-444.
- Nathanson, R., & Saywitz, K. (2003). The effects of the courtroom context on children's memory and anxiety. *Journal of Psychiatry and Law*, 31, 67-98.
- Payment, K. E.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metacognitive and executive functioning skills and source-monitoring accuracy in an eyewitness suggestibility paradig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nt State University
- Putnam, S. P., & Rothbart, M. K. (2006). Development of Short and Very Short Forms of the 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7(1), 103-113.
- Quas, J. A., Bauer, A. B., & Boyce, W. T. B. (2004). Physiological reactivity, social support, and memory in early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5, 797-81.
- Quas, J. A., Carrick, N., Alkon, A., Goldstein, L., & Boyce, T. (2006). Children's memory for a mild stressor: The role of parasympathetic and sympathetic arousal. *Developmental Psychobiology*, 48, 686-702.
- Quas, J. A., & Lench, H. C. (2007). Arousal at Encoding, Arousal at Retrieval, Interviewer Support, and Children's memory for a mild stressor.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1, 289-305.
- Roberts, K. P. (2000). An overview of theory and research on children's Source Monitoring. In K. P. Roberts & M. Blades (Eds.), *Children's Source Monitoring* (pp.11-57). Mahwah, NJ: Erlbaum.
- Roberts, K. P., Lamb, M. E., & Sternberg, K. J. (2004). The effects of rapport-building style on children's reports of a staged event.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8, 189-202.
- Robinson, E. J. (2000). Belief and disbelief: Children's assessments of the reliability of sources of knowledge about the world. In K. P. Roberts, & M. Blades (Eds.) *Children's Source Monitoring* (pp.355-381).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
- Roebers, C. M., & Schneider, W. (2001). Memory for an observed event in the presence of prior misinformation: developmental patterns in free recall and identification accuracy.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9, 507-524.
- Salmon, K., Roncolato, W., & Gleitzman, M. (2003). Children's reports of emotionally laden events: Adapting the interview to the child.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17, 65-7.
- Schacter, D. L., Kagan, J., & Leichtman, M. D. (1995). True and false memories in children and adults: A cognitive neuroscience perspective. *Psychology, Public Policy, & Law*, 1, 411-428.
- Thierry, K. L., Goh, C. L., Pipe, M.-E., & Murray, J. (2005). Source recall enhances children's discrimination of seen and heard even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Applied*, 11, 33-44.
- Thierry, K. L., Lamb, M. E., Pipe, M. E., & Spence, M. J. (2010). The flexibility of source-monitoring training: Reducing young children's source confusion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24, 626-644.

- Thierry, K. L., & Spence M. J. (2002). Source-Monitoring Training Facilitates Preschoolers' Eyewitness Memory Perform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8(3), 428-437.
- Vygotsky, L.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차원고접수 : 2013. 11. 15.

수정원고접수 : 2013. 11. 25.

최종게재결정 : 2013. 12. 01.

The Effect of Children's Shyness, Interviewer's Social Support, and Source Monitoring Training on Children's Free Recall of a Stressful Event

Seungjin Lee
Institute of Psych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mjoo Kwak
Department of Psyc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of interviewers' social support and cognitive training on the accuracy of children's memory of a potentially stressful event. Children ($N = 128$) aged 3-12 years, who were scheduled to undergo a minor dental procedure participated in the study. Overall,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consistent with and extended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that social support improved the accuracy of children's source monitoring. Younger children were more easily influenced by an interviewer's social support than older children. Furthermore, for children who were evaluated as relatively more shy than others in the same-age group, the accuracy of their report improved considerably when an interviewer provided social support. By creating a naturalistic situation (i.e., dental operative procedure), this study was able to identif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the way children report stressful experiences and found out ways in which the reliability of the children's reports might be facilitated by a supportive interviewer. The findings provided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contributing to children's motivation and ability to give a reliable report of a stressful event.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ill be particularly helpful in providing guidelines for interviewing children in legal settings.

Key words : Memory, Stress, Source Monitoring, Social Support, Shyness, Children's Testimony

부록 1. 아동이 경험하는 치과 진료와 동영상으로 관찰하는 진료 구성의 예

아동이 경험하는 치과 진료의 구성 예시	동영상을 통해 관찰되는 진료의 구성 예
치과 위생사가 아이의 이를 닦아줌	아동이 직접 세수를 하고 타월로 자신의 얼굴을 닦음
치과 의사가 metal hat (tooth ring) 사용	의사 선생님이 아동의 키와 몸무게를 측정함
치과 의사가 녹색 고무 밴드 사용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아동의 복부를 진료함
치과 의사가 턱베개(mouth prop) 사용	의사 선생님이 아동의 혀를 관찰함
치과 의사가 레이저 불빛 사용	의사 선생님이 진료 도중 물을 한 잔 마심
치과 의사가 분수대(water fountain) 사용	의사 선생님이 아동의 이마에 뽀뽀를 해 줌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음	알람 소리에 아동이 놀라는 표정을 지음
치과 진료 의자가 아래위로 움직임	의사 선생님이 아동의 헤어스타일을 칭찬함
아동은 스티커나 반지를 선물로 받음	진료 후 바나나와 딸기를 간식으로 받음

부록 2. 인지 훈련을 위한 과학 놀이 구성의 예

과제 목록	아동이 직접 관찰하는 과학놀이 내용	동영상을 통해 관찰하는 과학놀이 내용
자석	다른 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놀이	같은 극이 서로를 밀어내는 놀이
색종이 접기	학 모양 접기	배 모양 접기
공 튀기기	구슬을 이용한 놀이	테니스공을 이용한 놀이
비눗방울	비눗방울이 생기는 놀이	비눗방울이 생기지 않는 놀이
주사위	동일한 색깔의 주사위 놀이	색깔이 서로 다른 주사위 던지기 놀이
블록/오목렌즈	블록 렌즈를 사용한 놀이	오목 렌즈를 사용한 놀이
유성/수성펜	번지지 않는 펜을 사용한 놀이	번지는 펜을 사용한 놀이

부록 3. 출처 감찰 훈련 문항의 예

	과제	유형	질문 문항
1a)	자석	선택형	a)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실험 봤어요?
		출처	그것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1b)		오정보	b) 비디오에서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것을 봤어요?
2a)	테니스공	선택형	a) 테니스공이 튀어 오르는 실험 봤어요?
		출처	그것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2b)		오정보	b) 비디오에서 테니스공이 튀어 오르는 실험을 봤어요?
3a)	렌즈	선택형	a) 렌즈를 통해서 글씨가 작게 보이는 것을 봤어요?
		출처	그것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3b)		오정보	b) 비디오에서 렌즈를 통해 글씨가 작게 보이는 것을 봤어요?
4a)	펜	선택형	a) 물을 떨어 뜨려도 그림이 지워지지 않는 것을 봤어요?
		출처	그것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4b)		오정보	b) 그림이 물에 지워지는 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부록 4. 재인 훈련 문항의 예

	과제	질문 문항
1a)	자석	a) 빨간색과 파란색 자석이 서로 붙는 실험을 관찰 했어요 ?
1b)		b) 빨간색과 초록색 자석끼리 서로 밀어내는 것을 관찰 했어요?
2a)	구슬, 공	a) 구슬이 튀어 오르지 않는 것을 관찰 했어요?
2b)		b) 야구공이 튀어 오르는 것을 관찰 했어요?
3a)	렌즈	a) 렌즈로 보니까 글씨가 작게 보이는 것을 관찰 했어요?
3b)		b) 거울로 보니까 글씨가 크게 보이는 것을 관찰 했어요?
4a)	비눗방울	a) 비눗방울을 불어 보았을 때 커다란(손으로 그리며) 방울이 생겼나요?
4b)		b) 소금물을 불어 보았을 때 방울이 많이 생겼나요?
5a)	펜	a) 글씨 위에 우유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관찰 했나요?
5b)		b) 강아지 그림이 물에 번지는 실험을 관찰 했나요?